

장자 철학

- 자유로운 마음, 타자와의 어울림

원주시역사박물관

2022. 8. 27

정 재 상(원광디지털대학교)

1

‘장자’라는 인물과 책

❖ ‘장자’라는 인물

- 가장 오래된 전기는 사마천의 『사기』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의 기록.
- 송나라 몽(蒙) 땅 사람으로, 성은 장(莊), 이름은 주(周). 옷나무 밭을 관리하는 관직을 맡음.
- 생존연대는 B.C. 369(?) - B.C. 286(?) 무렵으로 추정. 기원전 4세기경, 맹자와 거의 같은 시기.

❖ 『장자』라는 책

-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장자의 저술은 “십수만자(十餘萬言)”였다고 함.
- 현재 전해지는 『장자』 텍스트는 6만 5천자 정도.
-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의 총 33편으로 구성
- 내편이 장자의 저술, 혹은 장자 본인의 사상에 충실한 것, 외·잡편은 장자의 후학들이 쓴 것으로 추정.

※ 한글번역본: 이강수, 이권 옮김, 『장자』, 길 ;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2

장자의 중심사상: 만물제동萬物齊同·소요유逍遙遊

❖ 만물제동(萬物齊同)

모든 존재에 대해 구별짓거나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과 삶: 지인(至人), 진인(真人)

“만물은 나와 하나가 된다

만물여아위일萬物與我爲一 · [소요유 逍遙遊]

→ 언어나 사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대립심·차별심을 갖지 않고,
만물과 함께 살며 만물과 일체가 된다.

“사물(의 自然)에 몸을 싣고 마음을 자유롭게 노닐게 한다

승물이유심乘物以游心 [인간세 人間世]

→ 만물의 변화에 몸을 맡기며 마음을 자유롭게 노닐게 하는 존재.

인간의 인식·언어

“어떤 것도 ‘저것’ 아님이 없고, 어떤 것도 ‘이것’ 아님이 없다. ……

‘저것’은 ‘이것’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은 또한 ‘저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는 ‘저것’과 ‘이것’이 동시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나 또한 ‘생김’이 있으면 동시에 ‘사라짐’이 있고,

‘사라짐’이 있으면 동시에 ‘생김’이 있다.

‘긍정’이 있으면 그와 동시에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그와 동시에 ‘긍정’이 있다.

‘옳음’이 있음에 의해 ‘그름’이 생기고,

‘그름’이 있음에 의해 ‘옳음’이 생긴다.

[제물론 齊物論]

→ 이것과 저것, 옳음과 그름 등은 상대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 이러한 자신의 언어나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세계는
끊임없이 대립하고, 차별적인 존재들로 가득찬 공간이 되고 말 것.

인간의 인식·언어의 문제

- “ [설결] 선생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이 한결같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까?
- [왕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 [설결]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 [왕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 [설결] 그러면 모든 존재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 [왕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한 번 말해 보세.
내가 아는 것이 사실 모르는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또 내가 모르는 것이 사실 아는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은가?

- 설결의 첫 번째 질문: 객관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질문
- 두 번째 질문: 반성적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
- 세 번째 질문: 회의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

인간의 인식·언어의 문제

- “ [설결]
- 내가 시험삼아 자네에게 물어 보겠네.
-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될 것이네.
- 그런데 미꾸라지도 그럴까?
- 사람이 나무 위에서 잔다면 겁이 나서 떨 수밖에 없을걸세.
- 그런데 원숭이도 그럴까?
-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거주지’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을 풀을 먹고,
-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지.
-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인식·언어의 문제

“

[설결]

원숭이는 비슷한 원숭이와 짝을 맺고, 순록은 사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놀지 않는가?
모장이나 여희는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 속에 깊이 들어가 숨고,
새는 보자마자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급히 도망가 버리지.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아름다움’을 안다고 하겠는가?

[제물론]

인간의 인식·언어의 문제

“

장자와 혜시가 호(濠)강의 다리 위에서 노닐고 있었다.

(장자가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말하였다)

[장자]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구나.

이게 물고기의 즐거움이겠지.

[혜시]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인가?

[장자]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가?

[혜시] 물론 나는 자네가 아니니 자네를 알 수 없네.

하지만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해야 말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의 인식·언어의 문제

“

[장자] 자, 처음으로 돌아가 말해 보세요.

자네가 내게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네는 이미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줄 알고

그와 같이 물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호(濠)강의 다리 위에서 알았고 말일세.

[추수 秋水]

삶(生)과 죽음(死)

“

어떻게 내가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가?

어떻게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에 안주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것과 같지 않음을 알겠는가?

삶(生)과 죽음(死)

“

여희는 애(艾)땅에서 국경을 지키는 관리의 딸이었다.
진(晉)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잡아 데리고 갈 때
그녀의 흐르는 눈물이 옷襟을 적셨다.
그녀가 진나라의 궁궐로 가서 진왕과 함께 침대를 같이 쓰고
맛있는 고기 음식을 먹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후회했다.
죽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기를 바랬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제물론]

삶(生)과 죽음(死) - 물화(物化)

“

얼마 안 가서 자래(子來)가 병이 들었다.
혈떡거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보였고,
부인과 자식들이 그를 에워싸고 울고 있었다.
자리(子犁)가 문병을 가서는 말하였다.
“에이! 물러나시오. 변화를 방해해서는 안 되요.”
자리는 문에 기대어 자래에게 말하였다.
“조화의 작용은 위대하구나!
또 이제 그대를 무엇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쥐의 간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벌레의 앞다리로 만들려는 것인가?”

삶(生)과 죽음(死) - 물화(物化)

“

자사(子祀), 자여(子輿), 자려(子犁), 자래(子來) 네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했다.

“누가 없음(無)으로 머리를 삼고, 삶으로 척추를 삼고,

죽음으로써 꿈무늬를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죽음과 삶, 있음과 없음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과 벗하고 싶네.”

네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

마음에 막히는 것이 없어 그대로 친구가 되었다.

삶(生)과 죽음(死) - 물화(物化)

“

자여가 갑자기 병이 나서 자사가 문병을 했다.

자여가 말했다.

“위대하구나! 저 조물자는! 나를 이처럼 오그라들게 하다니.”

그의 등은 곱추처럼 굽고, 등뼈는 불쑥 튀어 나오고,

오장이 위로 올라가고, 턱은 배꼽에 묻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목덜미는 하늘을 향하고,

음양의 기(氣)가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했다.

비틀거리며 우물에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아, 정말 조물자가 나를 이렇게 오그라뜨렸구나”.

삶(生)과 죽음(死) - 물화(物化)

“자사가 물었다. “자네는 그게 싫은가?”
(자여가 말했다) “천만에. 싫어할 까닭이 있겠는가?
내 왼팔이 닭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새벽을 깨우겠네.
내 오른팔이 차츰 변해 활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새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가 변하여 수레바퀴가 되고 내 정신이 변하여 말이 되면
나는 그것을 탈 터이니 다시 무슨 탈 것이 필요하겠나.
무릇 우리가 삶을 얻은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삶을 잃는 것도 순리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니 기쁨이나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이것이 옛날부터 말하는 매달림에서 풀려나는 것(縣解)이라 하는 것이네.”

[대종사 大宗師]

자의식의 세계

“옛날에 바다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아 있었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데려와 종묘에서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 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그 새는 어리둥절해 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만에 죽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는 것이다.

[지락 至樂]

자의식의 세계

“

남해의 제왕을 숙(儻)이라고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忽)이라고 하며,
중앙의 제왕을 혼돈(渾沌)이라 한다.

숙과 홀이 어느날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하였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을 의논했다.

“사람은 누구나 (눈·코·귀·입의) 일곱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에게만 이것이 없지.
우리가 구멍을 뚫어 주자”.

그래서 날마다 구멍 하나씩을 뚫었는데
7일이 지나자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

[응제왕 應帝王]

빔(虛)과 무대(無對)의 세계

“

배로 강을 건널 때 사람 없는 빈 배가 와서 부딪치면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면,
피하거나 비켜가라고 소리칠 것이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않고, 두 번 소리쳐도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에는 반드시 온갖 욕설을 퍼붓게 된다.
앞서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화를 내는 것은
앞서는 빈 배(虛)였고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實) 때문이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텅 비게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누가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산목 山木]

빔(虛)과 무대(無對)의 세계

“

‘저것’이 없다면 ‘나’도 없다.

‘내(나)’가 없으면 취할 것도 없다.

비피무아 비아무소취 非彼無我, 非我無所取.

[제물론]

예술론 - 기술(技)이 도(道)에 이른 경지

“

포정(庖丁)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 따라 투둑투둑 서걱서걱 소리가 나고

칼을 움직이는 대로 (소의 뼈와 살이 갈라져) 설뚝설뚝 소리가 났는데

모두 음률에 맞았다.

그 모습은 마치 상림(桑林: 은나라 때 명곡)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고,

그 소리는 경수(經首: 요임금 때 명곡)의 연주와도 같았다.

그것을 보고 문혜군이

“아! 훌륭하구나. 기술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하고 감탄했다.

그러자 포정은 칼을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도(道)이며 이는 기술(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술론 - 기술(技)이 도(道)에 이른 경지

“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삼 년이 지나자 소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칼 댈 곳만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神)으로 소를 마주하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감의 감각 작용이 멈추고 신(神)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소의 자연적 신체 구조)을 따라 칼을 넣고,

뼈와 살 사이의 커다란 틈새에서 칼을 휘두르며,

골절 사이의 큰 구멍으로 칼을 움직여 소의 몸의 생긴 그대로를 따라 갑니다.

그래서 칼이 뼈나 살에 부딪친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양생주 養生主]

예술론 - 목수 재경(梓慶)의 이야기

“

재경(梓慶)이라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 거(鑿: 종이나 북을 거는 대)를 만들었다.

거가 완성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의 숨씨라며 놀라워했다.

노나라 임금의 거를 보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기술로 이것을 만들었는가?” ……

이에 재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목공일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제가 거를 만들 때면 언제나 기(氣)를 소모시키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반드시 재계(齋戒)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사흘이 되면 상을 받거나 벼슬이나 녹봉을 타는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닷새가 지나면 비난이나 칭찬, 잘 만들지 못 만들지 하는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칠일째가 되면 제게 팔다리나 몸뚱이가 있다는 사실마저 잊습니다.

예술론 - 목수 재경(梓慶)의 이야기

“

이 때가 되면 공무(公務)나 조정(朝廷)이니 하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저의 기술은 오로지 하나(專一)가 되어

마음을 어지럽히는 외부의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 때가 되어 저는 비로소 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나무의 성질을 살핍니다.

최상의 나무를 발견하면 저는 그로부터 완성된 모습의 거(鑿)를 보게 되고

그 후에 비로소 나무에 손을 대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즉 자연으로써 자연에 합하는 것〔以天合天〕입니다.

제가 만든 물건들이 신의 숨씨와 같이 보이는 것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달생 達生]

예술론 - 진정한 화공(畫工)

“

송나라 원군(元君)이 그림을 제작하려 하자 많은 화공(畫工)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그림판을 받아들고서는 정해진 자리에 가서

혀로 붓을 가다듬거나 먹을 갈거나 하였는데,

(사람이 많아) 반수 이상은 실외에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화공이 늦게 도착했는데,

그는 느릿느릿 움직이며 뛰지도 않고,

그림판을 받아들고서는 제자리로 가지도 않고서 그대로 숙사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원군이 아래사람을 불러 살펴보게 하였는데,

그 화공은 옷을 벗고 두 다리를 뻗은 채(解衣般礴) 알몸으로 뒹굴고 있었다.

원군을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과연! 이 자야말로 진정한 화공이도다!”

[달생 達生]

신윤복 〈미인도〉의 제사(題詞)

반박흥중만화춘 盤薄胸中萬化春
필단능여물전신 筆端能與物傳神

자유로운 마음 속에
만물이 변화하는 봄기운이 깃드니
붓이 대상과 하나되어
여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25

장자의 나비꿈

“ 언젠가 장주(莊周: 나)는 꿈 속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되었다.
 훨훨 하늘을 나는 그런 나비.
 즐거운 기분이 되어 마음 가는대로 하늘을 날며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는 장주였다.
 과연 이것은 장주가 꿈을 꾸어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꾸어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와 나비는 분명 구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별지을 수 없는 것은 왜인가?)
 이것이야말로 사물의 변화(物化)라는 것이다.

[제물론]

26



육치 陸治(1496-1576) 〈몽접 夢蝶〉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